4월, 울산 태화강은 연등으로 장엄된다

4월 26~28일부터 태화강연등축제
26일 제등행렬, 27일 봉축법요식
전국TOP가요쇼 등 즐길거리 다채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기 2568(2024) 태화강연등축제가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주최하는 이번 태화강연등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서 울산 시민 불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4월 26일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4월 27일 봉축법요식, 28일 봉축기념 전국TOP10가요쇼 등이 준비돼 있다.

올해 제등행렬은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 시작해 태화루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행렬단의 모습을 선보인다. 제등행렬단이 국가정원에 도착하면 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4월 26~28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올해 태화강 연등축제에서는 울산 시민 불사를 위한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27일에는 주요 행사들이 국가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먼저, 울산의 젊은 청년들을 응원하는 붓다 어게인-토크콘서트가 열린다. 토크콘서트는 버닝소다, 멜팅사운드, 먼데이필링 등 인기 밴드의 무대로 꾸며지며 캠프닉 컨셉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부처님 찬탄게송 대회도 다시 불자들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승가 합송 찬탄법석이 마련된다. 승가 합송은 울산지역의 고승 대덕스님들을 법석을 모시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한 여러 불자가 무대에 올라 경전 속 게송을 읊으며 찬탄과 공경의 마음을 전한다.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법요식도 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된다. 태화영산회의 '태화사' 부처님 이운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불단에 모신 후 공양의식과 봉축법요식이 이어진다. 봉축 법요식에는 울산지역 스님들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봉축의 기쁨을 나눈다.

저녁 일몰 시간에는 태화강 달빛산책이 준비됐다. 시민들은 연등을 들고 1시간 코스의 태화강 일대를 함께 걸으며 강물을 등빛으로 수놓는다. 아울러 주최 측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장엄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4월 28일에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한다. 봉축기념 전국TOP10가요쇼에는 조항조, 유지나, 박상철 등 인기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쓰레기 없는 에코축제를 지향하는 것도 태화강 연등축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도 체험에는 천마도예의 숲과 태화강 연등축제가 협업한 특별한 찻잔이 활용되며, 협업에 후원하는 참가자에 한해 찻잔이 제공된다. 주최 측은 "개인컵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예년에 비해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진 불기 2568(2024) 태화강연등축제에서는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시민, 불자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대화합과 찬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붕선교종 종정 '운악 대륜 대종사' 취임

4월 3일 총본산 일붕선원서 취임법회 봉행

대륜 대종사 "대통합 노력"
전법 포교 중요성 취임 일성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4월 3일 총본산 서울 일붕선원에서 제7세 종정 운악 대륜 대종사〈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륜 대종사는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단을 창종하신 일붕존자와 먼저 입적하신 대종사 스님들, 그리고 종단을 원만하게 이끌어 온 중진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 한국불교 주역으로서 불신과 갈등, 대립과 독선을 털어버리고 화합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대륜 대종사는 1960년 파주 법륜사 현암화상을 은사로 정두석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현암화상으로부터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라는 가르침과 운악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심청전 발상지' 곡성 관음사 대웅전 낙성

삼존불 점안법회도 함께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옛이야기 '심청전'의 발상지인 전남 곡성 관음사(주지 덕운 스님)에서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법회'가 4월 2일 봉행됐다.〈사진〉

점안식에는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제19교구 화엄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과 윤영규 곡성군의장, 군의원, 탤런트 송지효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건축면적 101㎡(30.5평)에 내9포 외7포로 전면 3칸의 팔작지붕 전통양식이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보살 삼존불과 후불탱화, 104위의 신중탱화가 모셔져 이날 점안을 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신임 덕운 스님의 원력으로 지역의 중심도량이자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관음사는 이날 전 주지 대요 스님과 박무애심 신도에게 불사회향에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녕 법성사, 법성보살 19주기 추모다례재

4월 1일 대광명전서 봉행
"밝은 사회 · 미래 위해 정진"

관음종 창녕 영축산 법성사를 창건한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관음종 법성사(주지 법명 스님)는 4월 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법주사 율주 무상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종회의장 혜산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호법원장 경원 스님, 포교원장 도현 스님, 총무원 부원장 도각 스님, 총무부장 홍경 스님, 사서실장 법룡 스님, 총무원 소임자 스님, 각 사찰 주지스님, 최윤섭 관음종 중앙신도회장, 고복순 백운사 반야회회장, 법성사 신도회 임원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누구라도 불성이라는 구슬을 가지고 있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법성보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슬을 하나씩 주었다. 법성보살의 추모다례재를 맞아 자신에게 그 구슬의 진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법성보살의 유지를 받들어 밝은 사회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무등산 산신재' 봉행

3월 30일, 300여 명 동참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가 3월 30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무등산 증심사 산신재'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중현 스님, 선재사 주지 진훤 스님과 증심사 대중인 덕인 스님, 종문 스님, 덕성 스님, 동은 스님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이지애, 김현숙 동구의원과 이안수 동구청불자회장 등 신도 300여 명이 동참했다.

증심사를 포함해 무등산은 오래전부터 산신신앙이 존재해 왔다. 특히 증심사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서석산신지위' 바위에 새겨져 있는 위패가 있어 오랜기간 산신기도와 산신신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증심사는 천 년 넘게 온갖 재앙으로부터 증심사를 지켜준 호법산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3년부터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헌화의식에 이어 2부 산신불공이 진행됐다.

중현 스님은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을 아끼는 마음을 넘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힘들고 지칠 때 무등산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무등산의 품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며 "오늘날 무등산 덕분에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상시교육 입재

매주 화요일마다 년중 진행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가 4월 2일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에서 상시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입재식에서 영산 스님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영산작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왔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수재, 수륙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며 "올해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년 중 상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교육에 역량을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의 상시교육은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씩 불교전통의식인 생전예수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흥사, 이웃에 쌀 기탁

군산 성흥사가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비의 쌀 100포를 기탁했다.

성흥사(주지 보위 스님)는 4월 2일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100포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사진〉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봄을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쌀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흥사 불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성흥사에서 기탁한 백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결식 위험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총신도회 국수 나눔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총신도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점심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선운사 총신도회(회장 정찬원)는 4월 3일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에서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국수를 대접했다.〈사진〉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 회장은 "선운사 신도회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관장 해봉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를 대접해주신 선운사 신도회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환경연대, 쌀 전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는 3월 28일 광주 양림동 나무숲센터 3층 그린담마홀에서 '제17회 광주전남지역 공익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70명에게 각 40kg씩 총 2800kg을 전달했다.

해청 스님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자비심을 나누자'라고 말한다. 이는 함께 나누기, 기뻐하고, 행복하자는 뜻"이라며 "쌀 보시에 동참해준 사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광덕사, 능가사, 동원사, 문빈정사, 선덕사, 신광사, 약사암, 연화사, 원각사, 원효사, 정토사, 천룡사, 향일암 등 광주전남지역 사찰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화사, 칠존석불 문화제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3월 29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대한제국 마지막 원찰 용화사 칠존석불에 기원하다'를 주제로 문화제를 열었다.〈사진〉

2024년 전통산사문화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문화제는 바가바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가온무용단 대표 조현화씨의 관음무, 비보잉 댄스, 대금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 용화사는 1902년 순빈엄비의 명에 의해 청주지주 이희복이 창건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원찰로 잘 알려져 있다. 본래는 고려 사뇌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1993년 무심천 제방 확장공사 당시 용화사 주변에서 400여점의 사뇌사 유물들이 발견된 바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불선원 선불교대 체육대회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학장 무아스님)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가 3월 31일 창원 유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사진〉 선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주최·주관하고 신도회와 거사림, 불심동행회가 후원한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는 15기 신입생 환영식을 겸해 열렸다.

이날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200여 동문은 각 기수별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6개팀을 구성해 몸풀기 체조, 훌라우프 링 전달게임, OX퀴즈, 진불가수왕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무아 스님은 "도반들과 소통하고 밝은 마음으로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삶, 나아가 모두가 참 부처로 깨어나는 삶을 가꾸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